

# 프랑스 건축이론의 전통과 20세기의 건축(11)

## The Tradition of Theory in French Architecture and the Architecture of 20th Century

### Le Corbusier의 건축에 나타난 합리주의적 건축의 전통

- architecture parlante 개념의 소멸과 새로운 전통의 등장 -

김미상 / 경기대 건축대학원 강사  
by Kim Mi-Sang

### 목 차

1. Jacques-François Blondel의 건축이론:
  - ① 장식 (la Décoration)
2. Jacques-François Blondel의 건축이론:
  - ② 배치 (la Distribution)
3. Etienne-Louis Boullée의 건축이론 ①
4. Etienne-Louis Boullée의 건축이론 ②
5. E-N Ledoux의 건축이론 ①
6. E-N Ledoux의 건축이론 ②
7. J-J Lequeu의 건축이론
8. 고전주의 건축과 자주적 건축  
(Architecture Autonome)
9. 고전주의 건축과 자주적 건축  
(Architecture Autonome)
10. Beaux-Arts와 합리주의
11. Le Corbusier의 건축에 나타난  
합리주의적 건축의 전통
12. Epilogue: 21세기와 건축이론

Alan Plattus는 The Le Corbusier Guide에서 Le Corbusier란 이름을 20세기 건축을 대변하는 중대한 한 현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묘사할 뿐만 아니라 모더니즘 건축분야에 나타난 deus ex machina로 취급하고 있다. 이 기계장치는 Le Corbusier가 표방하였던 기계미학의 정신을 떠올리게 할뿐만 아니라 그가 모던건축의 drama 내에서 많은 해결책을 제시하였음과 아울러 위기를 가져다 준 동기임을 암시하고 있는 흥미로운 표현이기도 하다.

건축계에 이론적 방향을 제시하고 모범적 예로써 그의 작품이 숭상되던 모더니즘의 시대는 실로 Le Corbusier의 시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모더니즘 말기에 - 혹자는 아직도 모더니즘이 생생히 살아있다고 주장하므로 그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 되겠지만 - 그 운동이 가져다 준 폐해 때문에 많은 비난이 Le Corbusier에게 돌아가기 시작하였으며 그 가운데 많은 부분은 도시적 차원에서 거론이 되었다. 건축의 차원에서 거론되던 문제로는 건축물이 지니는 냉혹한 얼굴과 무표정성, 무의미성, 무상징성에서 오는 인식의 혼란이 많이 거론되었다. 이것의 동기를 밝힌다는 것은 단지 몇 가지의

디자인 개념만으로는 분석이 불가능한 문제지만 Le Corbusier의 건축 디자인 요소를 채움하여 원인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흔히 Le Corbusier의 건축과 건축론은 기능주의, 합리주의, 모더니즘의 건축 등으로 이야기될 뿐만 아니라 플라톤주의, 데카르트주의 등으로 분류를 하곤 한다. Le Corbusier의 건축은 수많은 분석과 연구의 대상이었으므로 어디로부터 왔는지 어떤 경로를 거쳐 이러한 분류와 규정이 형성되었는지를 밝히는 작업은 많다. 그러나 위에 언급한 주의, 정신을 가리키는 명칭들이 보여주고 있듯이 대부분의 연구는 사변적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형이상학적 설명에 더욱 힘쓰며 실질적으로 건축가의 방법론과 연결하여 규명함은 그리 쉽사리 눈에 띄지는 않는 것 같다.

우선 Le Corbusier는 그가 숨기려고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주의가 남긴 유산으로부터 혜택을 누렸으며 계승하여 발전시켰다는 사실은 여러 연구에 의하여 명확히 드러났다. 이런 형식주의는 고전주의로부터 온 것인데 지금까지 연재하며 설명한 프랑스의 18세기 건축분야에서 볼 수 있는 이론과 실제, 공공건축과 주택건축의 명확한 분리와 구분은 이것이 지니는 대표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Le Corbusier는 이러한 공통점 외에도 지금까지 연재한 18세기의 건축가들이 그러했듯 이상적 도시계획이나 주택건축, 그리고 삽화가 들어간 건축이론서 등에 많은 정력을 기울였다.

Le Corbusier와 그의 선배들, 그 중에서도 많은 공통점을 보이고 있는 Ledoux와의 비교를 통하여 보면 가장 커다란 상이점은 그 내용에서 보다는 행해진 작업의 순서에서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Ledoux는 생의 말기에 건축이론에 관한 스케치와 비망록을 작성하여 사망 직전에 출간한 반면 Le Corbusier는 이미 어렸을 때 스케치를 시작하여 모두 간직하기 시작하였으며 20대 초반에 이미 여러 저술활동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었다. Le Corbusier에게는 이러한 작업은 일생동안 끊임없이 연속된 것이며 후기의 작업이란 그것을 보충하고 완성하는 것에 불과하였다. 18세기 Ledoux의 작업은 도시계획안으로부터 시작하여 일련의 hôtel계획안들 그리고 저술활동으로 이어진 반면 Le Corbusier는 저술, 주택계획안 그리고 도시계획으로 이어졌다. 요약하면 Le Corbusier에게는 이론

이 실행보다 선행되었던 것이다.

건축 및 도시계획에 관한 대부분의 Le Corbusier의 사상과 이론은 1차 세계대전을 전후하여 이미 견고히 정립되었다. 1914년의 Dom-ino이론, 주택의 원형(原型)을 제시한 1920년의 Citrohan주택 계획안, 동년 8월의 L'Esprit nouveau(레스프리 누보: 신정신)誌 창간, 1922년의 Ville contemporaine de 3 millions d'habitants (3백만 거주인의 현대도시) 발표, 1923년의 Vers une architecture (하나의 건축을 향하여) 출간, 1925년의 Plan Voisin (브와쟁 계획안)이 이런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1920년부터 불과 5년만에 건축 및 도시계획 이론을 정립하고 그것을 적용한 계획안을 제시하였으며 출판물 통하여 널리 전파시키기 시작한 것이다.

당시의 건축작품을 수록하고 있는 Oeuvre complete 1권(외브르 콩블레트: 전집 1권) (1910-1929)을 살펴보면 건설되었거나 계획안에 그친 주택계획안들이 게재되어 있으며 20년대 후반기에 나타나는 대규모의 작품들, 예를 들어 국제연맹회관 (1927-1928), Mundaneum (1929) 모스크바의 Centrosoyuz 계획안 등이 실려 있다. 1930년대 초는 전통적인 가로를 없애고자 하는 투쟁의 시대로서 소비에트궁(1931), 구세군건물 (1932)등의 건물에서 그 정신이 구현되고 있고 이론과 실재가 병행함을 볼 수 있다. 1930년대와 제1차 세계대전의 시대에는 도시계획이론이 계속 탄생하였으며 대표적인 것으로 1935년의 Ville radieuse(빌 라디외즈: 빛나는 도시)가 있다. 빛나는 도시는 후에 Marseille의 아파트 Unite d'habitation(위니떼 다비따시옹)으로써 부분적으로 구체화되었다. 1950년대부터 그의 사후에까지 이어진 편찬의 Chandigarh 계획은 실현된 유일한 구체적 도시계획안으로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다.

Le Corbusier의 '빛나는 도시' 계획안은 18세기의 혁명사상에서 볼 수 있었던 사회학적이고 형식주의적이었던 경향을 띄고 있던 유토피아의 이미지를 구체화시킨 것이다. 새로운 유토피아의 사상을 구현하고 있는 빛나는 도시에서는 계몽주의 이후 사상가들이 이상으로 하였던 이성(理性)이 전체를 지배한다. 지면의 공간은 소수 개인의 사유지로 할당되기보다는 사회에 속한 것으로 다수인을 위한 공공의 복지를 위한 공간이 된다. 빛나는 도시의 시

민은 불결한 전통적인 복도식 도로(rue corridor: corridor street)가 제거됨으로 광대한 공터 - 공원 - 에 드문드문 배치되는 고층 건물에 거주함으로 환기, 일조와 시각조건 등이 양호한 위생적 도시에서 경제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계획되었다. 미학적인 측면에서 주목할 사항 가운데 한가지는 빛나는 도시의 출현으로 과거엔 촘촘한 텍스처의 도시 내에 유클리드 기하학적인 평면형태의 광장이나 공원을 만듦으로 플라토닉한 보이드를 만들던 노력이 Le Corbusier에게는 보이드 내에 솔리드한 유클리드 기하학적 건축물을 배치하는 노력으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과거의 도시가 공원을 포함하고 있었다면 새로운 도시는 공원이 도시를 포함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비로소 계몽주의 시대의 작가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해 온 단순한 유클리드 기하학적 형태의 건물들이 도시적 조직 내에 플라톤의 철학으로 직조된 것이다. 이 도시에서는 Auguste Comte에 이르러 최고점에 다다른 계몽주의 사상가들의 생각을 반영하듯 모든 도시의 요소는 분리되고 분절되며 위계화된 후 각 카테고리로 묶여져 소위 합리적인 zoning의 기반이 된다. 그럼으로써 새로운 도시는 다시 또 물리화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화적인 측면, 정신과 도덕적 측면에서도 건강하고 위생적이며 건전한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조건과 의도를 한층 더 강조하고 구체화할 수 있게 되었다.

Le Corbusier의 도시에서 건물군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단위요소는 Citrohan과 Dom-ino이다. 신고전주의의 hôtel 또는 villa와 마찬가지로 각 단위체는 독립시켜 개체로 분리하여 놓아둘 수도 있고 수평 또는 수직방향으로 복제하여 늘어놓거나 쌓을 수 있다. 두 가지 예 모두에서 구조체계가 자유로운 평면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함으로 새로운 공간개념을 지닌 건축의 탄생을 가능케 하였다.

두 유형에서 볼 수 있는 근본적인 차이점은, Citrohan은 측면이 막히고 전후가 트인 장축형의 평면을 가진 공간으로서 방향성을 지닌 것이지만 Dom-ino는 사방이 모두 트인 비방향성의 공간이란 점이다. Dom-ino는 Laugier가 주장한 hutte primitive(primitive hut)의 20세기판 번안물이라고 할 수 있으며 빛나는 도시의 근본적인 구성요소가 된다. 자유평면을 통한 새로운 건축을 Dom-

ino가 제시하였다고 말한다면 빛나는 도시는 자유 사회의 새로운 도시계획을 제안하였다고 하겠다.

Dom-ino에 있어서 주목할만한 점은 슬래브 사이에 독립원주(圓柱)가 서 있어서 시각적으로 그리드를 설정하고 있으며 단순히 지지체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공간 내에 배치된 원통의 오브제 혹은 조각물처럼 지각되는 것이다. 이런 형태적 중요성은 외부 mass의 구성에서도 존중이 된다. Citrohan이나 Dom-ino로부터 자연스럽게 도출되고 또 이들에 의하여 형성되는 유클리드적 기본 기하학의 형태는 Le Corbusier의 건축에 있어서 중요한 미학적 구현의 출발점이 된다. 이런 개념의 연장은 명료하게 분절된 외부의 독립 mass로 이어지는데 다음과 같은 설명에서 당위성을 찾아볼 수 있다.

‘어느 날 우리는 주택도 자동차와 같을 수 있음을 깨달았다: 끝없이 무수한 수의 기관(器官)들을 자립적 상태로 담고 있는 단순한 표피... 그렇다, 철근콘크리트는 ‘루이’(왕들) 또는 ‘르네상스의 평면을 보존하려 한다면 비용이 든다. 철근 콘크리트는 작은 집에 자유평면을 가능케 한다’ 그 뿐만 아니라 Le Corbusier는 Dom-ino를 통하여 불건전한 프랑스 고전주의의 구조로부터 해방되어 완전히 새롭고 합리적인 구조의 건축으로 이룰 수 있음을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날카로운 지적: ((루이)(왕들)과 성기 르네상스(와 같은)) 고전주의의 타협성(妥協性)으로부터 자유로워진 평면은 고딕의 경쾌한 건강상태, 고딕의 합리성을 되찾았다. 하지만 완전히 새로운 방법으로 (되찾았다).’

새로운 구조방식인 Dom-ino로 인하여 얻어진 단순한 유클리드 형태의 파사드는 미학적인 충족조건과 구조적인 충족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킨다. 구조적인 제약으로부터 건축을 해방시킨 결과로써 채용된 자유 파사드는 내외의 공간의 직접적 연결과 통합을 가능케 하였다. 주택의 내부는 건축의 문제, 그 외부로부터는 도시계획의 문제임을 주장한 Le Corbusier의 말을 수용한다면 이론적으로는 건축의 공간과 도시의 공간이 하나로 통합되는 차원에까지 다다른 것이다.

Le Corbusier의 5가지 건축의 요점 가운데 하나인 자유평면(plan libre)은 커다란 공간을 만드는데 도움을 준다. 하지만 Le Corbusier의 건축평면을 살펴보면

자유평면의 개념은 큰방을 만드는 데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방이란 적절히 막히고 어떤 형태를 지니며 연속적인 벽이 합리적으로 존재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의 건축을 살펴보면 이런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서비스 공간뿐이다. 평면에서 서비스공간은 확실히 규정되어 있고 공공의 영역은 단지 나머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전통적 건축의 평면에서는 상이한 성격의 공간들이 분할, 분절되고 있지만 자유평면에서는 공간에 놓여 있는 오브제들을 명료하게 표현하고 있다.

여기서 공간의 연속성, 전체의 통일성, 단일성 등은 각 부분의 독자성에 의해 대체되고 있다. 방은 - 전통적 의미에서의 방이라고 부르는 부적절하고 불가능하지만 - 장소성을 상실하고 전이(轉移)의 맥락 속에서 부유하고 있을 뿐이다. 방은 확정된 어떤 공간의 성격을 지닌 것이 아닌, 단지 영역의 개념만을 가지는 것으로 바뀐 것이다. 아이러니컬하지만 이한 공간엔 어떠한 이질적인 것도 침입하기가 어렵다. 아마도 자유평면이 가져야 한다고 작가가 생각했을만한 관념적 공간요소 가운데 하나인 절충과 화해의 성격은 그 공간이 지녀야 하는 간단없는 연속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획득되기가 전적으로 불가능한 조건이 되어 버린 것이다.

당시 보조를 같이 하였던 입체주의(Cubisme)와 순수주의(Purisme)의 회화는 각 형상을 그와 유사한 모양의 이미지 조각으로 부수어 모호하고 다의적인 새로운 관계로 재구성을 한다. 그러나 Le Corbusier와 그의 동료 건축가들은 전통성을 완전히 제거하여 새로운 형태의 조합을 제시하고 있다. 입체주의가 전통적 이미지의 새로운 버전을 제시하였다면 자유평면은 새로운 이미지를 가지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 것이다. 자유평면은 전통적인 평면의 형태를 분쇄하여 얻어진 파편으로써 새로이 재구성한 것이 아니라 내적인 관계를 완전히 역으로 뒤집은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과거의 평면에서 여분의 자리를 차지하던 요소들은 그의 새로운 평면에서는 그 자리를 찾을 수 없다. 무엇보다도 건축과 관습, 그리고 architecture parlante의 문제를 뒤집어 버리고 쓸모 없는 것으로 만든 불씨는 바로 자유평면에서 찾을 수 있다.

자유평면에서 발생하는 문제 가운데 이론을 동원하여 아귀가 딱 들어맞도록 설명하기가 가장 어정쩡한

사항은 아마도 파사드일 것이다. 자유평면과 Dom-ino의 구조는 연속 파사드의 필요성을 무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요소임이 확실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e Corbusier는 연속 파사드를 고집하였고 불투명성과 투명성을 사용하여 건축물에 다른 건축가들이 전혀 이룩하지 못한 정도로 에너지, 깊이, 긴장감, 의미와 철학을 부여하였다. Mies에게 있어서 파사드의 문제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Gropius에게는 파사드란 골치 아픈 문젯거리였다. Terragni에게 있어서 파사드란 평면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디자인 요소였다.

이런 예(例)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모던 건축가들에게 있어서 파사드는 논쟁거리가 되지 않았다. 단지 Le Corbusier와 Terragni만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었을 뿐이며 결과적으로 벽의 예술적 처리를 위해 꾸준히 연구한 사람들이었다. 어찌되었든 내부와 외부,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을 중재하는 역할을 할뿐만 아니라 전체 건축물의 얼굴이 되는 파사드는 자유평면의 개념과 상치되는 것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연속 파사드의 주장은 건축 및 도시계획에 있어서 수직성의 고려와 거론을 거부토록 하는 요소가 되었고 모던건축물 중 걸작이 되는 파사드는 손에 꼽기도 어려울 만치 희소하게 된 결과를 가져왔다. 한마디로 architecture parlante의 개념에 충실하고자 하는 건축가들은 그 자리를 잃게 된 것이다.